‘여소야대’ 정국…정계개편 회오리 몰아치나

■ ‘정권교체’ 민주당 변화

민주, 안정적 국정수행 차원 협치 · 연정 제안

국민 · 바른정당, 선거 패배 따른 내홍 불가피

19대 대선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마무리되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원내 1당이긴 하지만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 협치 내지는 다른 정당과의 연정 또는 합당 등도 시도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정치권에 정계개편 회오리가 불어 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포스트 대선 이후 당초 예상했던 정치권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경우 일정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정계개편의 중심에 두 당이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대선승리 여세를 몰아 강온 양면전략으로 정국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 확실시된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양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국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대상으로 한 연정과 협치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

이 과정에서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책임론을 둘러싸고 내분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패배하면서 현 지도부 총사퇴 등 공백이 예상된다. 더구나 안 후보의 경우 국회의원직도 사퇴한 만큼 향후 당을 이끌어 갈 지도부 구성을 놓고 갈문을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호남에서의 안 후보 득표율을 놓고도 주류와 비주류 의원들간 이견으로 당이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호남지역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영입에 나설 경우 단일대오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민의당이 호남민심을 대변하고 있는 만큼 정국운영 과정에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 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 광주 · 전남을 비롯한 호남 전체에서 안 후보의 지지도가 문 대통령의 지지도에 비해 50%조차 안돼 정치적 입지가 크게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역시 국민의당을 끌어안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정국운영이 불가피한 만큼 최대한 예우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당은 대선패배의 후유증을 이른 시간 내에 떨어 내고 민주당에 맞설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광주 · 전남에서는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당직에 지역출신 의원들이 얼마만큼 포진할지 여부도 지켜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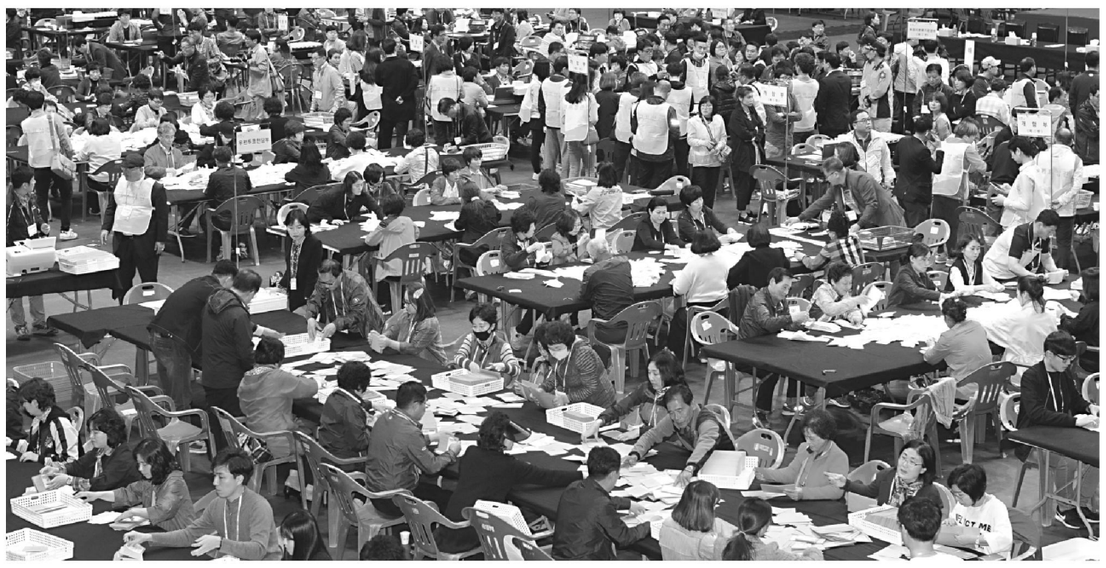
바른정당의 경우 대선과정에서 13명의 의원이 탈당해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하면서 당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을 추스릴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특히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탈당이 이뤄져 민주당에 합류할 경우 분열이 가속화 되고 정계개편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 한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을 제외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이 패배에 따른 책임론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무엇보다 바른정당 의원들의 향후 행보에 따라 정계개편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열린 9일 오후 광주 염주실내체육관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오류로 개표가 잠정 중단됐다 복구 후 재개됐다. /김태규 기자

출구조사 응답자 51%
“차기, 국민통합 중점”

최우선 과제 53% ‘경제활성화’

5 · 9대선 방송 3사 출구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차기 대통령 국정방향으로 ‘국민통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3사의 의뢰로 칸타퍼블릭, 코리아리서치, 리서치앤리서치 등 3개 여론조사 기관이 9일 3,352명(예상 응답자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출구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의 국정방향이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51.4%가 ‘우리 사회의 갈등해소 등 국민통합’을 꼽았다.

‘부패비리 등 폐단을 척결하는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답변은 45.6%를 기록했다.

또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현안을 묻는 말에는 ‘경제활성화 · 일자리창출’이라는 답변(53.2%)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뒤로는 ‘개헌 등 정치개혁’(13%), ‘북핵 및 남북관계 개선’(10.5%), ‘미국 중국 등 강대국과의 외교’(10.4%), ‘분배 및 복지’(9.4%) 등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53.7%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부문으로 ‘정당 · 국회’를 꼽았으며, ‘검찰’(18.9%), ‘언론’(9.7%), 재벌(8.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바람직한 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35.1%와 30.7%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를 택한 응답자는 각각 15.4%, 6.6%에 그쳤다.

사드배치에 대한 찬반은 각각 50.1%, 34.6%로 찬성이 더 많았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복권에는 반대의견(65.4%)이 찬성(25.3%)을 압도했다.

한편, 응답자들은 후보선택 이유로 ‘부패와 비리를 청산할 수 있어서’(20.7%), ‘경제 성장과 발전 적임자라서’(19.6%), ‘도덕적이고 깨끗한 인물이라서’(19.3%), ‘국민통합을 잘할 수 있어서’(18.1%) 등을 꼽았다.

응답자의 상당수는 후보선택에 ‘최순실 국정농단’(38.1%), ‘박 전 대통령의 불법적 국가운영’(37.5%)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대선패배’ 국민의당 소용돌이 속으로

호남참패 충격… ‘지도부 총사퇴론’ 제기 불가피

당내 일각에선 바른정당과의 연대론 벌써 ‘솔솔’

국민의당이 9일 대선 패배의 소용돌이에 급속히 빨려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는 대선 레이스 한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양강구도를 형성했으나 선거 종반전에 하락세를 극복하지 못해 고배를 들었고, 국민의당도 집권당의 꿈을 접게 됐다.

원내 40석의 제3당으로서 개혁공동정부를 기치로 여당의 꿈을 키웠으나, 제3당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며 주저앉은 것이다.

특히 국민의당의 최대 지역적 기반으로 전체 의석수 28석 중 23석을 차지하고 있는 호남에서 참패한 만큼 충격이 더욱 컸다.

승리를 자신했던 호남에서 득표율이 문 후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자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도부까지 호남 일색으로 이뤄졌지만, 호남에서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총사퇴론이 불거지는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선거 과정에서 당력이 안 후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도리어 곳곳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됐던 점에서도 지도부에 책임의 화살이 돌아가는 분위기다.

선거 초반 선대위에 참여한 호남 의원들이 서울에 있기보다는 호남에서 상주하며 야권 ‘텃밭’ 싸움에서 기선잡기를 위한 종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 지도부 및 호남중진으로 이뤄진 지휘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아 유야무야 됐다.

선거 막판 뒤늦게 호남 총력전을 벌였으나 이미 대세는 기운 상황이었다.

선거과정에서도 호남 지도부와 호남 의원들 위주로 짜인 선대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3당으로서 도전적인 캠페인을 제시하고 네거티브 공방전에도 제때 대응 못하고 ‘뒷북’을 치며, 사실상 안 후보와 몇몇 실무진이 선거를 이끌도록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도부가 총사퇴할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조기 전당대회가 실시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러나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안 후보가 20%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3당으로서 그리 참담한 성적은 아니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향후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에 대한 통합 작업을 벌이는 등 정계개편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지도부 책임론으로 내홍에 빠졌다간 당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지도부 사퇴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지 못하고 체질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당의 개혁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선전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민주당과의 관계설정도 주목된다. 이는 정계개편 문제와도 복잡하게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일단 국민의당은 새 정부에 대해 협치를 하겠다는 스탠스를 보이면서 당내 상황 및 정계개편, 국민의당 인사들의 민주당 정부 참여정도 등에 따라 거리조절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당은 10일 선대위회의를 열어 지도부 거취 문제를 포함한 당 수습책을 논의하기로 해 결과가 주시된다.

/연합뉴스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적 입찰가 선정
◈ 최고 수익률 보장

법원경매 (주) 대신경매

※ 직원구함
경매,부동산 관심있으신분 가족같이 배우실분 공인중개사 환영 !

경매 실전 교육

▼ 광주,전남 상가건물 (빌딩) ▼

◈ 북구 삼각동 (6층 상가건물)
토 1,183평 건 6,780평
대단위 아파트 대로변 , 일곡병원 인근
▶ 감정가 19억 → 최저가 8억5천

◈ 동구 금남로 (4층 상가건물)
토 118평 건304평
금남로 4가역 1분 / 충장로 중심상권
▶ 감정가 10억 → 최저가 7억4천

◈ 남구 방림동 (11층 빌딩)
토 212평 건1,378평
월세 6천만 예상
▶ 감정가 46억 → 최저가 32억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6층상가건물)
토 141평 ,건 400평
아파트 밀집지역, 6차선도로 접
▶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3천

▼ 시외 (돈되는)절반값 상가 ▼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8층상가건물)
토 130평 , 건 646평
1층~4층 (사우나)
5층~8층 (상가,사무실)
▶ 감정가 15억 → 최저가 8억

◈ 강원동 영월군 주천면 (펜션)
토 5,383평 , 건 575 평
평창강 전망 최고 !!
▶ 감정가 25억 → 최저가 9억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정비소)
토 1,270평 건 107평
파주 LCD산업단지 (10m 도로접)
▶ 감정가 28억 → 최저가 6억8천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주유소)
토 1,647평 건428평
클린턴휴게소 내 위치
▶ 감정가 20억 → 최저가 4억8천

▼ 숙박시설/다가구 원룸 ▼

◈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토 415평 건 577평
첨단지구 쌍암공원 1분 , 총룸 28개
(월수익 4,000만 예상)
▶ 감정가 45억 → 최저가 25억

◈ 부안군 진서면 (숙박시설)
토 302평 ,건286평
월수익 1,000만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4억

◈ 영암군 삼호읍 (숙박시설)
토 11평 ,건 353평
룸 35개 (월수익 2,000만)
▶ 감정가 7억 2천 → 최저가 4억

◈ 전주시 덕진구 (숙박시설)
토 103평 ,건 359평
전주역 인근 (모텔밀집지역)
▶ 감정가 11억 → 5억6천

▼ (소액)상가 추천 ▼

◈ 북구 신안동 (10층 중 3층상가)
토 13평, 건 34평 (실평수)
광주역 1분 (월수익 100만)
▶ 감정가 1억4,600만 → 최저가 5천2백

◈ 광산구 쌍암동 (10층 중 6층 오피스텔)
토 1평 ,건 8평 (실평수)
보 300만 월 30만
▶ 감정가 6천 → 최저가 2천7백

◈ 상무지구 오피스텔 (13층 중 11층)
토2평,건14평
상무역 1분 , 상무지구 중심가
보 500만 월 40만
▶ 감정가 8천6백 → 최저가 6천만

◈ 남구 주월동 (토지)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 (123평)
남구청 1분 , 4m도로 접
▶ 감정가 3억5천 → 최저가 3억5천

◈ 서구광천동 (주택)
토 51평 , 건53평
광천동 재개발 지역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7천

▼ 평택 토지 전문 ▼

◈ 평택시 신장동 (대지)
134평 - 일반상업지역
송탄역, 터미널 5분,개발 부지 최적합
▶ 감정가 9억 → 최저가 6억3천

◈ 평택시 신장동 (대지)
65평 - 일반상업지역
송탄역, 터미널 5분,개발 부지 최적합
▶ 감정가 5억3천 → 최저가 3억7천

◈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대지)
323평 - 계획관리지역
포승읍사무소 인근 ,25m도로 접
▶ 감정가 10억 → 최저가 10억

◈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농지)
632평 - 농림지역
도로접 , 진위역 5분
▶ 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3억

① 경매 기초반
▶ 매주 10시 30분
경매기초부터 ~ 입찰까지

② 경매 실전 전문반

실전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입찰부터 매매임대,개발까지 원스톱강의

010-6670-9800 010-7384-7800